

오승환, 삼성으로 돌아오나

콜로라도서 지명할당...사실상 방출
오른쪽 팔꿈치 수술 앞뒤 FA 불가능
국내 복귀시 무조건 삼성으로 가야



콜로라도 로키스의 오승환(37)이 한국 프로야구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콜로라도 구단은 24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승환을 지명 할당했다”고 밝혔다. 방출 전 단계다. 타 구단이 오승환을 영입하지 않으면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앞둔 오승환을 영입할 구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환은 팔꿈치 헛조각 제거 수술을 받기 때문에 올해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환이 더이상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한다면 KBO리그로 복귀가 가능하다. 단,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와야 한다. 2013년 일본프로야구로 진출할 당시 오승환은 FA가 아닌 임의탈퇴 신분이었다. 오승환에 대한 보류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72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된다. 2015년 해외 불법도박에 대한 징계다. 일본 한신 타이거즈를 거쳐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오승환은 4년간 232경기에서 16승 13패 42세이브 45홀드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올해 21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평균자책점 9.33으로 부진했다.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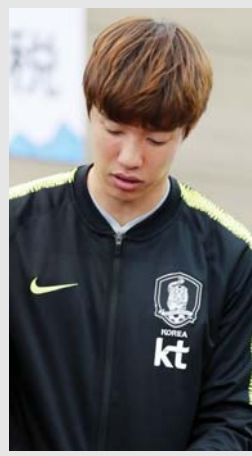
호날두, SNS 수익 스포츠스타 중 1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97만5000달러(약 11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영국 SNS 마케팅업체 호퍼HQ가 24일(한국시간) 발표한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 2019 스포츠 부문에 따르면 호날두는 97만5000달러로 1위에 올랐다. 호날두가 SNS에 게시글 하나를 올릴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이다. 호날두는 스포츠 선수 가운데 최다인 1억7028만명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브라질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72만2000달러(약 8억5000만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64만8000달러(약 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35만7000달러(약 4억2000만원)를 기록한 왕년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차지했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27만2000달러(약 3억2000만원)로 5위에 이름을 걸었다.

뉴스스

전북 홍정호, K리그1 22라운드 MVP

FC서울전 멀티골 기록
K리그2는 아산 고무열



을 올렸고, 미드필더 부문에서는 윤보상(상주), 김보경, 믹스(이상 울산, 김준범(경남))이 선정됐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수비수 홍정호가 깜짝 멀티골을 앞세워 2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축구연맹은 23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22라운드 MVP로 멀티골과 수비로 전북의 승리를 이끈 홍정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정호는 1위(전북)와 3위(서울)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지난 20일 FC서울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전북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김진수, 김민혁, 이용과 함께 포백 라인을 구축한 홍정호는 전반 26분과 후반 13분에 연거푸 골을 넣었다. 탄탄한 수비도 선보였다. 홍정호는 임재민(성남), 이태희(상주)와 함께 라운드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 포함됐다. 공격수 부문에서는 박동진(서울), 로페즈(전북), 공민현(성남)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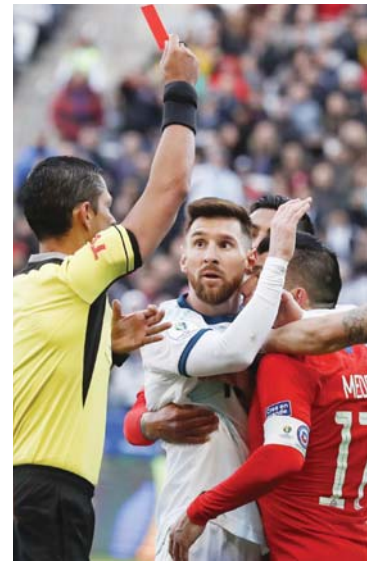
뉴스스

‘부패 발언’ 메시, 중징계 피해

코파아메리카에 불만...1경기 출장정지·벌금 177만원

“코파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는 브라질을 위한 대회였다. 부패했다”는 폭탄 발언을 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중징계를 피했다. 남미축구연맹은 24일(한국시간) 2019 코파아메리카에서 연맹과 심판, 대회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메시에게 1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500달러(약 177만원)를 부과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이달 초 끝난 코파아메리카에서 3위를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0-2로 패했다. 칠레와의 3·4위전에서 이겨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메시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칠레전에서는 레드카드까지 받았다. 메시는 일정을 마치고 “코파아메리카 대회 동안 우리에게 대한 존경심

이 부족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했지만 결승에 가지 못하게 했다. 부패와 심판이 팬들에게 축구를 즐기게 못하게 했다”며 “축구를 망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페루와의 결승전에서 이겨 우승할 것이다”며 개최국의 우승이 이미 정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브라질이 우승했다. 메시의 폭탄 발언은 남미연맹은 물론 개최국이자 우승팀 브라질을 불편하게 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대 2년 출장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다행히 퇴장에 따른 1경기 출장정지와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만약 메시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아르헨티나는 간판 공격수 없이



2022 카타르월드컵 남미 지역예선을 치러야 했다. 앞서 메시는 후폭풍이 거세지자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통해 연맹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특정 단체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

추신수, 시즌 17호 홈런 폭발...텍사스 8연패 탈출



‘추추 트레인’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7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 좌익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전,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1회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토미 밀론의 초구를 밀어쳐 좌월 아치(시즌 17호)를 그려냈다. 가

운데로 볼린 86.3마일(139km)짜리 직구를 노려쳤다. 지난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홈런을 친 이후 3일 만에 다시 손맛을 봤다. 7월에만 5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추신수는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라인드라이브로 아웃됐고, 4회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7회 선두타자로 나와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3으로 낮아졌다. 시즌 41타점 64득점째를 기록했다. 텍사스는 10안타를 집중해 7-2로 승리했다. 8연패에서 탈출한 텍사스는 시즌 51승 50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를 달렸다.

박지수, 7분여 동안 2리바운드·1어시스트...팀 단독 선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가 7분여 동안 뛰면서 2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박지수의 소속팀 라스베이거스 에이스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에서 벌어진 2019 WNBA

정규리그 시애틀 스톰과의 경기에서 79-62로 승리했다. 2연승을 달린 라스베이거스는 13승(6패)째를 신고하며 코네티컷 선(12승 6패)을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박지수는 7분45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2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

다. 슛은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링을 외면했다. 이번 시즌 19경기 중 14경기에 출전한 박지수는 경기당 0.7점 1.5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라스베이거스는 울스타 휴식이 이후인 31일 델리스 윈스와 대결한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온천, 칠새미골, 화엄사, 절전강, 운주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어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